

- 주요 뉴스: 12월 FOMC, 0.25%p 인하. 내년은 예상보다 적은 2회의 금리인하 예고
 - 미국 11월 주택착공, 전월비 증가. 3/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 수준
 - ECB 주요 인사, 금리인하 관련 유연한 대응 강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도 주목
 - 중국 인민은행, 채권시장 위험관리 강화 요구. 지속적인 국채 가격 상승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2월 FOMC가 매파적이라는 평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향후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큰 폭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FOMC 결과 공개 전 관망세 우세한 가운데 0.2% 상승 마감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3%, 0.9%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FOMC 점도표 결과가 예상을 벗어나면서 큰 폭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52.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54.1원, 1.04% 상승). 한국 CDS 상승

		12/18일	12/17일	전일대비			12/18일	12/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872.2	6,050.6	-2.95%	국채 금리 10y	미국	4.51%	4.40%	+12bp
	유럽	514.43	513.66	+0.15%		독일	2.25%	2.23%	+2bp
	중국	3,382.2	3,361.5	+0.62%		영국	4.56%	4.52%	+3bp
	일본	39,082	39,365	-0.72%	CDS 5y	한국	37bp	36p	+1bp
	한국	2,484.4	2,456.8	+1.12%		중국	65bp	62bp	+3bp
환율	달러지수	108.26	106.96	+1.22%	위험 지표	EMBI+	-	363	-
	유로화	1.0353	1.0491	-1.32%		VIX	27.62	15.87	+74.04%
	엔화	154.80	153.46	-0.87%		WTI유	70.58	70.08	+0.71%
	위안화	7.2857	7.2842	-0.02%	원자재	구리	404.6	409.2	-1.11%
	원화	1,439.1	1,437.1	-0.14%		금	2,585.4	2,646.8	-2.3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12월 FOMC, 0.25%p 인하. 내년은 예상보다 적은 2회의 금리인하 예고

- 금리를 0.25%p 낮춘 4.25~4.50%로 제시하고,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위한 목표 달성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었다고 평가. 다만 성명서에서 정책금리 추가 조정의 폭과 시점 고려 시 몇몇 요인을 분석하겠다는 문구가 첨가되었으며, 이는 점진적인 금리인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
- 점도표 역시 내년 말 금리가 3.75~4.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내년 2회의 0.25%p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시장 예상(3회, 각 0.25%p)과 9월(4회 각 0.25%p)에 비해 좀 더 매파적(hawkish) 입장 제시. '26년 말에는 금리가 3.25~3.5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2.0%→2.1%)한 반면, 실업률 전망은 하향 조정(4.4%→4.3%). 인플레이션율(PCE 물가) 전망과 근원 PCE 물가 전망은 모두 상향(각각 2.1→2.5%, 2.2%→2.5%)
- 파월 의장은 이번 0.25%p 인하로 통화정책이 이전보다 덜 제약적이며 연준은 추가 완화에 좀 더 신중하다고 언급. 이는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향 조정과 정책금리의 중립금리 수준 근접을 반영했다고 설명. 다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상당히 제약적이며, 이에 금리인하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첨언
- 아울러 정책금리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강한 이유는 시장 임대료가 물가 측정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적 원인 때문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 지체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금융안정위원회(FSB), 비은행 부문의 위험관리 강화를 권고

-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FSB는 헤지펀드, 보험사, 비은행 금융 중개기관 등의 보유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자산 관련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금융시장을 좀 더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형태로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외부 스트레스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고 평가

■ 미국 11월 주택착공, 전월비 증가. 3/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 수준

- 11월 주택착공건수는 128.9만건(연환산)으로 전월(131.2만건) 대비 감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및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가 원재료 가격 상승과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주택건설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 3/4분기 경상수지는 3109억달러 적자를 나타내 사상 최대. 수입 증가와 정부수입 감소 등에 기인

■ ECB 주요 인사, 금리인하 관련 유연한 대응 강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도 주목

-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속도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인 분쉬 위원은 4회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을 주의해야 한다고 발언

■ 영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8개월래 최고치. 금리인하 전망은 다소 악화

-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2.6% 올라 3월 이후 최고치 기록. 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을 주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향후 영란은행의 금리인하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 프랑스 통계청(INSEE), 내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금년보다 둔화될 전망

- 금년 경제 성장률은 1.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다만 내년 1/4분기와 2/4분기의 성장률은 모두 0.2%에 그칠 것으로 예상. 예산 관련 정치권의 갈등이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중국 인민은행, 채권시장 위험관리 강화 요구. 지속적인 국채 가격 상승을 반영

- 채권시장에서의 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금융기관에 위험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지시. 이는 장기간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 하지만, 중국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채권가격의 상승세가 쉽게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4분기 GDP, 12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11월 기존주택판매
- 영란은행 및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독일 `25년 1월 GfK 소비자신뢰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 캐나다 정치적 위협 지속. 연준 의장은 트럼프 정책 평가 유보

- **트럼프, 캐나다 정치적 위협 지속** :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지칭하며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주장. 이는 캐나다 트뤼도 총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 한편 캐나다 행정부는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응해 국경 감시 강화 및 이민 제한 계획을 발표
- **연준 의장, 트럼프 경제정책 영향 평가 유보** :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범위와 기간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기 이르다고 언급
- **일본, 트럼프와의 회동에 신중** : 최근 트럼프가 이시바 총리와의 취임 전 회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하야시 관방장관은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 다만 일본 외무성은 방위비 부담 증액 등 미국의 돌발적 요구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
- **러시아, 트럼프와 협력 가능** : 세르게이 외무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관계 정상화 가능성 시사. 다만 현재까지 트럼프 측과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
- **트럼프 고문단, 광산 개발 환경평가 면제 추진** : 인수위 고문단은 핵심 광물 생산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방안을 제안.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
- **아르헨티나 대통령, 트럼프와 경제협력 기대** : 말레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르헨티나의 자유시장경제 개혁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과의 FTA 체결과 IMF 자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전망 표명

■ [해외시각] 트럼프 정책, 국제시장 경계감 고조 유발. OPEC+의 우려도 초래

- **트럼프 정책, 국제시장 경계감 고조** : 트럼프 관세 강화 및 세금 감면 정책으로 국제금리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연준의 금리인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아울러 국제금리 상승이 과도한 수준까지 이어질 경우, 시장에서의 우려가 높아지며 트럼프의 관세 강화 등 주요 정책의 강도가 다소 약해질 것으로 관측(Reuters)
- **OPEC+, 트럼프발 원유 생산 증가 경계** : OPEC+는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이 늘어나면 자신들의 유가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 다만 신규 유정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 증산은 제한적일 소지(Reuters)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주가의 상승세 지속, 과도한 낙관적 시각 등 위험 요인 경계할 필요 - 블룸버그

(Smart Vs. Dumb Money — How Exuberant About Trump Are You?)

-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적 시각 지속. 특히 월街的 투자자들은 감세와 규제완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고율 관세 등 부정적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의미를 축소. 이에 주가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상승.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은 오히려 위험 요인
- 또한 나스닥 일부 주요 종목 중심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사안. 이 외에 대규모 자금이 미국 증시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경계할 현상. 이를 감안하면, 내년에도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자세가 요구

■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산업정책을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수용할 필요 - Financial Times

(Trump can bend Biden's industrial policy to suit him)

- 트럼프는 대선 공약에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삭감할 것이라고 공표. 하지만, 지지자들로 분류되는 밴스 부통령 당선자, 배센트 재무장관 내정자, 일론 머스크까지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한 직·간접적 의견 제시. 아울러, 반도체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황금기 건설에 중요한 요소
- 이에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한계(Micron Technology의 생산시설 확대 지연 등)에 대해서는 트럼프 방식의 규제완화로 해결하고, 바이든의 유망한 경제 의제는 기존 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접근할 필요. 이와 같이 경제에 중요한 산업 정책은 현 정부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 의제에 맞춰 시행하는 결단이 중요

■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 전망,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증가 - The Econo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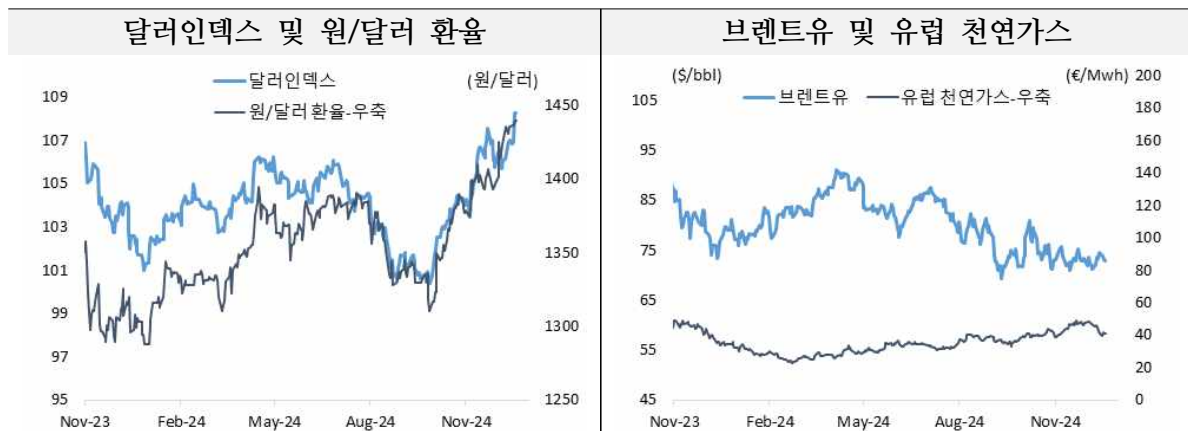
(China's economy is in for another rough year)

- 최근 중국은 소비심리가 위축. 이에 더해 트럼프의 최대 60% 對중국 관세 공약이 현실화되면 경제성장률이 2.4%p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경기 하방 압력 증폭. 그러나 최근의 금리인하, 부동산 부양책 등은 효과가 제한적
- 이에 따라 당국은 신규 지방채 발행 확대와 함께 내수 진작을 우선시. 이러한 여건에서 전문가들은 수요 측면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소비 쿠폰 지원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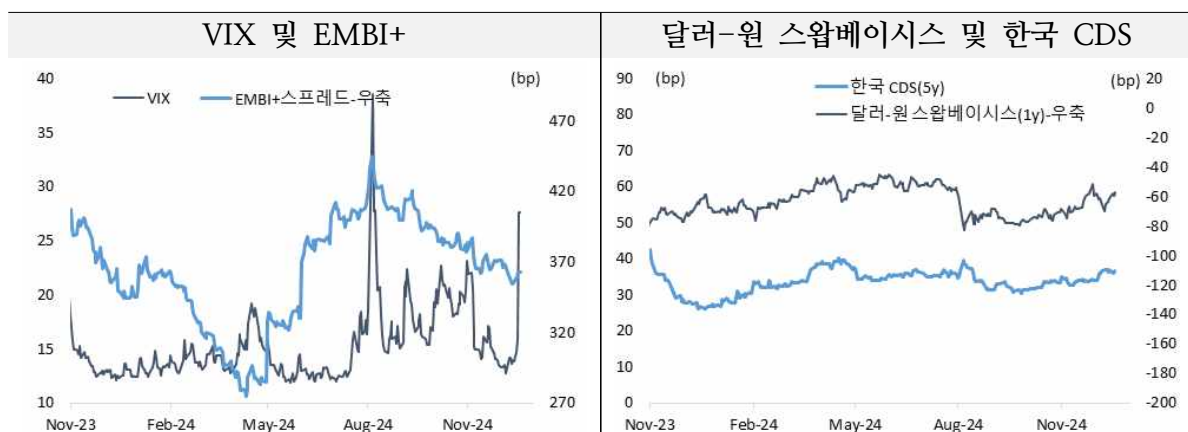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